

광주형 글로벌모터스가 아프다

기고



탁인석 칼럼니스트

이번에 광주형 글로벌모터스(약칭 GGM)에서 50명 직원 모집에 2000여 명이 몰렸다고 한다. GGM은 연봉이 기아자동차에 비해 훨씬 낮은 대도 40대 1 이라니 광주권 일자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젊은이들 사이에는 자동차 회사에만 입사하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이 컸을 것이다. 많이 몰렸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광주가 아직 희망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GGM에만 입사하면 광주를 떠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GGM의 건재가 경제 안정에다 인구소멸이나 유출을 줄여주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GGM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 서면서 폭발적으로 기대를 높였었다. 대통령이 직접 광주를 찾았고 서슴없이 자신의 최대의 치적으로까지 홍보했다. 기아자동차가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광주경제의 저변을 밑받쳐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있을까. 그런 만큼 GGM은 광주형 일자리란 이름으로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울산처럼 광주도 자동차의 도시가 되어 버렸고 그 과실을 누릴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것이다. 더욱이 역대 광주시장 가운데 굵직한 박광태 시장이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 데다 생산되는 '캐스퍼'도 온라인 구매방법 등 호응 또한 좋았었다.

현대 측은 생산비용 경쟁력을 감안하여 당초 반값임금을 제안한 광주시 측의

견을 받아들였고 GGM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다. 반값임금 자체가 광주시로서는 대단한 매력이고 그 매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임금이 다른 자동차 회사처럼 높아지면 판매량과 위탁생산물량이 현저히 줄게 되어 사업자체가 언제든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GGM은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상생협의회체'의 출범은 자동차 35만 대 달성까지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시민적 합의가 담보되어 있다. 시민적 약속은 준엄한 것이기에 사회적 합의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번 GGM에서 23%에 해당하는 직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미리서부터 광주경제에 불길한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 알 만한 사람끼리는 모이면 '큰일 났다'는 한숨 일색이다. 광주경제 지표를 몰라도 좋다. 작금의 사회적 현상은 건설경기는 퇴조하고 식당은 밤 시간을 앞당겨 문 닫는 곳이 태반이고 덩달아 택시업도 엄청 불황이다. 이 깊고도 너른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노인은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이리도 심할까 싶다. 작금의 현실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청장년 노인에게 제공한다는 게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일지 모른다. GGM닷컴에는 '불만이 있는 너희들 나와라. 내가 들어가겠다'란 문구가 여기저기 뜨고 있다. 사주 측에서 해고를 입맛대로 못한다는 약점을 틈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은 절대 반대다. 노조 측의 너무 빠른 요구가 광주의 경제에 먹구름을 만들고 있다. 현대 측 입장에서는 왜 투자했느냐는 근본적인

고민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심각하고 심각한 일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문 닫는 수순에 돌입했다고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만들었다.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서비스원은 성과가 0.22%에 그쳤고 이에 해당하는 월급제를 해당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고 팔 걷어 부쳤지만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막혀 손 놓고 말았던 모양이다. 근로자보다도 노조 쟁기가 '공공 돌봄'을 실패로 돌려버린 최근의 사례다.

GGM이 무너지면 우리 광주는 정말로 큰일이다. 주주는 무노조를 믿고 투자에 참여했고 35만 대까지는 가봐야 지속 가능성을 점치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 6000억 원을 투자하고도 가동률은 50%에 그쳐 있다. '캐스퍼' 같은 경차는 시장에 한계가 커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7월쯤에 전기차가 수출되면 일감이 확보된다는 한 가닥 전망은 있다. 그것도 수출이 순조로울 때를 말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기획실장을 지낸 글로벌 맨 윤용현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흔들기만 하는 풍토가 계속되고 있다.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일부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럴 때는 시민단체나 5·18 단체가 나서주어야 한다. 지난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광주·전남지역 22대 국회의원들도 '민생'을 가치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광주형 일자리'가 민생일자리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지역 현안을 정치권이 외면하면 어느 누가 해결할 것인가. 걱정이 크고 크다.

기고 정정화 광주교육협치위원·전 광주학부모독서연합회장



시민과 함께, 다시 책으로

5월 초 한국독서치료학회에서 주관하는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기획주제 가운데 하나인 '독서를 통한 시민 연대 - 원북(One Book) 운동 20년 반추'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부산대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부산은 2003년부터 원북(One Book) 운동을 추진해 20년 동안 규모 있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 진행되어 온 과정을 듣는 내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광주의 독서 열기는 대단히 뜨거웠다. 차곡차곡 쌓아온 '독서의 생활화 교육' 덕분에 실력 광주의 위상을 전국에 떨쳤고, 학부모독서회 역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그치지 않고 책을 읽어주는 활동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엄마가 먼저 읽고 감동한 책을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직접 읽어준 것이다.

2003년 태봉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책 읽어주기 활동이 2005년에는 52개 초등학교에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책 읽어주기 활동'으로 확산됐다.

책 읽어주기 활동에 따른 성과를 발표하는 광주학부모독서회 연합세미나를 2006년 2월에 열었는데 주제가 '미래의 광주 책 읽는 고을'이었다.

그때 벌써 우리는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도시를 꿈꾸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부산의 경우 교육청과 함께 산하 도서관이 주관하고 지역 언론사와 지역은 행이 꾸준히 지원하였기에 2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3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식 때 "광주교육의 자존을 회복하는 진흥원이 되겠다"는 원장님의 말씀에 순간 울컥했다.

광주의 독서교육을 위해 뭔가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께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진로팀에서 '독서교육 내실화 추진 계획'을 야심차게 기획해 놓고 있었다. 기획 자료를 살펴보니 홍보·일반화 계획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대상 독서교육 인식 확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20여 년 전 꿈꿔왔던 범 시민독서회를 만들 때가 된 것 같은 의무감이 밀려왔다.

시교육청과 함께 광주시청, 5개 지자체가 공동목표를 내세우고 의지를 다져간다면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다.

각 도서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독서모임과 새롭게 태동할 독서모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독서회 운영을 위해 약간의 재정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공공성과 자발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 범시민 독서모임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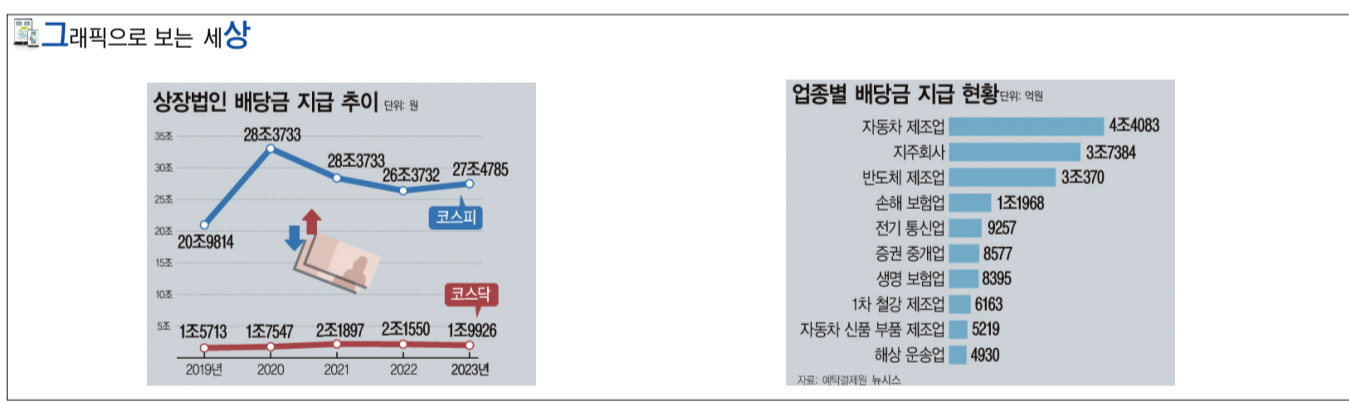
우리는 광주라는 공동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다. 디지털 매체에 매몰돼 사람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자본과 기술의 시대에 인간의 마음을 다독이고 재설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책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도 나누면서 세대간 소통은 물론 다양한 계층과 소통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사회 통합의 동력이 될 것이다. 요양원에 가서 책 읽어주기 봉사, 같은 책 여러 번 읽기, 낭독하기, 필사한 후 생각나누기, 마음 해아리기 등 남녀노소가릴 것 없이 함께 읽으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지금껏 해왔던 경험을 공유하고 얼마든지 함께하고자 한다.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책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책 읽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때까지 모든 전제 조건을 배제한 채 독서가 즐거움의 원천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리게 돼있다. 광주시교육청의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머지않아 상서로운 소식이 전해질 것만 같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